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성장 둔화 불가피 서울경제, 구조 다변화로 일정부분 보완 가능

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 생산성과 관계 분석해 경제정책 수립에 활용

전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이후 감소세는 더욱 급격해질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적인 변화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성장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분석을 통한 정책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연구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대도시인 서울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미치는 영향과 생산성 변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서울시 경제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 인구 가리켜

생산가능인구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상 만 15세 이상에서 65세 이하가 해당한다. 생산가능인구의 추정에는 장래인구추계가 사용되는데, 우리나라의 장래인구추계 방법은 코호트요인법에 근거한 인구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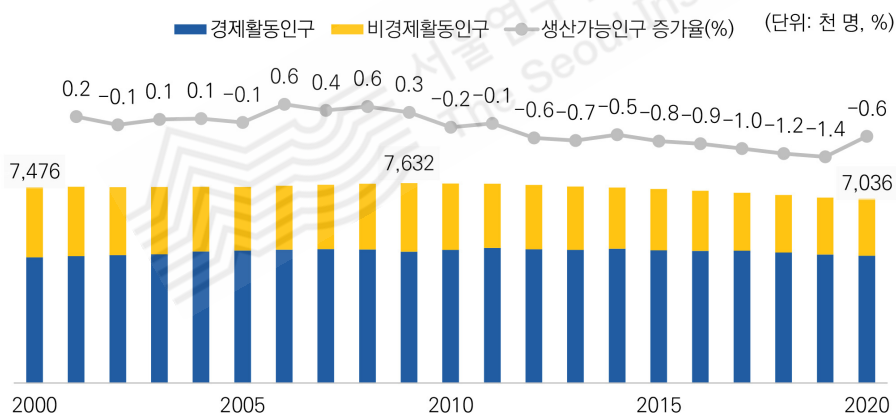
생산가능인구 비중, 세계는 2015년 후, OECD국가는 2011년 후 감소추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결과, 세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5년 65.6%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0년 65.2%까지 지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0년 OECD 국가 전체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64.8%로, 2011년 66.6%를 기록한 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연속 줄어들었다. 2020년 기준 OECD 주요 국가 중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캐나다(66.1%)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59.3%)이다. 미국은 2007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일본은 1993년 이후 줄어들기 시작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원인은 크게 경제위기의 발생과 사회의 전반적인 인구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경제위기 발생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사례는 일본의 1991년 부동산버블 붕괴와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대표적이다.

2000~2020년간 생산가능인구, 전국·수도권은 늘어나고 서울만 나홀로 감소

전국 생산가능인구의 2000~2020년 연평균 증감률은 0.6%였으며, 같은 기간 수도권은 1.0%로 확인돼 수도권이 전국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수도권 내에서는 경기도가 연평균 2.2%의 증가율을 보여 가장 크게 상승하였고 인천 역시 1.0%의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서울은 유일하게 연평균 0.3%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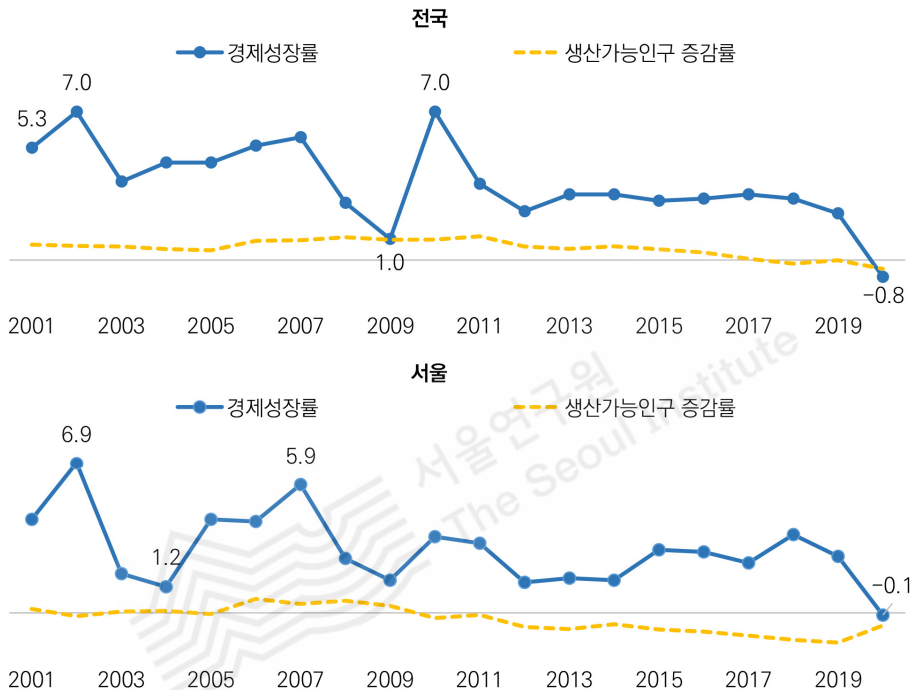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시 생산가능인구 추이와 증가율

서울, 전국에 비해 경제성장률·노동생산성은 높고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아

인구고령화는 노동시장에 생산가능인구 하락에 따른 잠재적 노동공급능력 감소를 유발하지만, 노령층의 자본재투입 증가로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은 향상되는 효과를 유

발한다. 인구고령화는 가계와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가계는 총인구의 감소로 부양인구비율이 증가하여 만성적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기업은 시장규모의 축소로 노동공급이 줄어들어 경제성장률이 저하된다.

생산가능인구 관련 주요 경제지표로는 경제성장률, 경제활동참가율, 노동생산성, 최종소비지출 등을 들 수 있으며, 서울은 전국 대비 경제성장률과 노동생산성은 높은 편이었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 2] 전국 및 서울시 경제성장률 대비 생산가능인구 증감률 추이(2001~2020년)

서울경제, 20년간 경제성장률·노동생산성·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동반반응’

과거 20여 년간(2000~2021년)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과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동반하여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성장률과 노동생산성 증감률, 생산가능인구 증감률, 물가수준 변동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은 생산가능인구 증감률과 28.5%의 기여를 가지는 반면, 노동생산성 증감률과는 △31.1%로 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장기적인 추세변화에 초점을 맞춘 회귀분석 결과, 생산가

능인구와 노동생산성이 1%p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각각 0.93%p, 0.75%p 오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산가능인구, 중장기적으로 서울 성장률·노동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 요인

거시경제 분야에 주로 사용하는 벡터자기회귀 모형(Vector Autoregressive Model: VAR)을 이용하여 추정된 뒤, 충격반응함수를 베이스라인(Baseline) 그룹과 카운터팩츄얼(Counterfactual) 그룹으로 설정하였다. 두 개의 그룹을 각각 모형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정형화하여 각 그룹의 충격반응함수를 생산가능인구에 조건부 예측을 수행한 결과, 평균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증감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노동생산성에 2배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 1] 서울시 생산가능인구의 충격반응 분석 결과 요약

	Baseline 충격반응(IR)			Counterfactual 충격반응(IR)		
	성장률	노동생산성	물가	성장률	노동생산성	물가
평균값 (Counterfactual / Baseline IR)	0.47	0.98	5.30	1.07 (2.26)	2.21 (2.25)	11.93 (2.25)
최대값 (Counterfactual / Baseline IR)	1.46	3.35	27.05	4.54 (3.09)	10.56 (3.15)	62.98 (2.32)

실질경제성장률, 정년연장·여성참가 증가·노동생산성 향상 등으로 개선 가능

성장회계모형을 기초로 성장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실질경제성장률은 2016~2025년 1.9%, 2016~2035년 0.4%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며, 정년연장, 여성참가율 증가, 노동생산성 향상이 실질경제성장률을 개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다음은 생산요소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 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 증가율을 계산하고, 29개 산업별 패널자료(1999~2017년)로 고령화가 순자본스톡 증가율, 노동증가율,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령화는 노동증가율(-1.1211), 총요소생산성 증가율(-0.4579), 순자본스톡 증가율(-0.1913)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잠재성장 측면에서 10년 단위로 생산가

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1980년대(1981~1989년) 7.6%에서 2010년대(2010~2019년) 2.1%로 둔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성요인별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지속 하락했고, 자본스톡 증가율은 큰 변화가 없었으며, 평균노동시간 증가율은 감소하는 추세였다.

서울경제 펀더멘털 변화에 대처 위해 사회적 협의 등으로 대책 마련 시급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복지 차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경제(산업) 정책으로 인지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한 주요 경제지표의 생성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지역 경제현안을 장기적으로 분석하려면 전국과 같이 분기 단위로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산출하고, 산업부문별 노동생산성지수의 작성, 주민등록인구 통계의 장기적인 시계열 자료축적, 지자체 차원의 장래인구추계 등이 시계열로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의 주요 거시경제지표(Fundamental, 펀더멘털) 변화와 구조적인 변화에 장단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년연장 논의, 여성참가율 증가 방안, 노동생산성 향상 노력 등에 사회적 협의와 경제적 논의 등을 거친 시급한 대책과 정책 수립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